

동두천·양주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

(박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74
----------	-------

제출년월일 2009. 9. 25.

제출자 박형덕, 형남선,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이균형, 김정자 의원(7인)

□ 제안이유

-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변모 하였음에도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양주군에서 분리된 동두천시가 정부 및 국회에서 국가의 핵심과제로 추진 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부응하여
- 주민들의 생활· 경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의 해소 및 규모의 경제 확보와 행정 운영의 효율화로 자립기반을 확충, 주민의 행복지수를 극대화 시킴과 더불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동두천·양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 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동두천·양주시는 행정상으로도 지역이 구분될 뿐, 두 도시가 신천 수계를 따라 산업기반이 연결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상으로도 「동두천양주교육청」의 관할구역으로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두천시가 1981. 7. 1 양주군 동두천읍에서 승격 분리 되어 두 도시간 분리기간이 짧아 시민간의 지역 공동체 의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 기피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건립 시에 상생이라는 대의에 합의 하여 양주·동두천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을 양주시 은현면에 건립하는등 서로 양보하며 시민간의 갈등조정을 통해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며
- 국가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두 도시는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역차별을 받아 온갖 개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두천 특별법」 제정과 제2기 신도시 「양주신도시」의 건실한 추진을 통해 발전의 도약을 꿈꾸는 동두천·양주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함.

□ 건의문 : 별 첨

수신 : 동두천시의회의장

2009. 9. 25

제목 : 「동두천·양주시 자율통합」 건의안

「동두천·양주시 자율통합」 건의안을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동두천·양주시 자율 통합」 건의안 1부.끝.

발 의 자 : 박형덕 의원 (인) 외 6인

동두천·양주시 자율통합 건의안

동두천·양주시 의회는 신뢰와 화합이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 전제조건이라는데 합의하고 상호 시민의 염원을 담아 자치단체 자율통합 원칙에 따른 양주시·동두천시의 통합을 건의합니다.

동두천·양주 2개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규모 확대와 최근 진행 중인 양주신도시, 국제자유도시 등 두 도시를 연계 개발하는 미래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두 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광역적인 도시행정에 있어서도 두 도시가 연접한 인천수계를 따라 자생적으로 발달한 기업군은 도시의 경계가 무의미 할 정도로 두 도시의 산업기반이 연결되어있으며 동두천의 도시개발 역시 양주시 경계까지 포화된 상태로 두 도시의 통합은 광역적 도시발전을 위해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교육행정상으로 「동두천양주교육청」의 관할구역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동두천시는 양주군 이담면에서 동두천읍으로 승격 후 1981.7.1. 동두천시로 승격 분리되어 두 도시간 분리 기간이 짧아 지금도 시민간의 지역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정부는 양주군에서 분리된지 46년이 지나, 시민 의식 속에는 양주라는 뿌리를 잊고 그간에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 누려온 기득권에 사로잡혀 동두천·양주 시민에 대한 존중심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손꼽히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 시에 상생이라는 대의에 합의하여 동두천·양주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양주시 은현면에 건립중입니다.

주민 기피시설이었으나 동두천과 양주가 서로를 위해 양보하며 시민간의 갈등조정을 통해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반면, 의정부시의회는 겉으로는 통합을 통한 도시기능 분산을 표방하면서도 통합시청과 행정기능에 대한 통합시의 지리·시민편의를 무시하고 통합의 대 전제조건인 신뢰와 화합을 깨뜨려 통합을 통한 상생발전이 아니라, 소지역 이기주의라는 속내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동두천·양주시 의회는 통합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인 신뢰 화합을 위해선 갈등이 해소되어야 하며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며 상생의 길을 걸어온 동두천·양주야말로 자율통합의 준비가 되어있다는데 뜻을 같이합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그늘에서 낙후된 두 도시는 지금도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역차별을 받아 온갖 개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시민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동두천 특별법」 제정과 국제자유도시건설, 송추~동두천간 도로시설, 「양주신도시」의 건실한 추진을 통해 발전의 도약을 꿈꾸는 동두천·양주 시민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양주시의 통합을 바라는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자치단체 자율통합을 공동 건의합니다.

2009년 9월 28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일동

